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The Moderating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Dependency and School Adjustment

김보미¹ 장경은² 오현미³

Bomi Kim¹ Kyung Eun Jahng² Hyunmi Oh³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in relationship to smartphone dependency and school adjustment.

Methods: Participants included 300 fifth and sixth graders attending P and A elementary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alyze data.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set at $p < .05$ for all analyses.

Result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le students showed higher levels of smartphone dependency than female students, and students' smartphone dependency increased according to age. The students' smartphone dependency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school adjustment and their perception of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Second, the students' perception of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fathers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dependency and school adjustment.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open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their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can buffer the adverse effects of smartphone dependency on school adjustment.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to improv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ubsequently build strong, positive family relationships.

key 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pen communication, parents, smartphone dependency, school adjustment

* 본 논문은 2018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2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mail : kjahng@khu.ac.kr)

3 공동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최근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59.3%로 나타났다(한국미디어 패널조사연구팀, 2015). 초등학생들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행동과 태도의 준거가 되는 가치를 쉽게 내면화하고, 외부 자극상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에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경계를 혼동하거나 디지털 미디어 매체가 낳은 가상세계 안에서의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나타나는 역기능은 일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역기능적 문제보다 어린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위험요소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이기영, 최성열, 신성철, 장성화, 2008). 이렇듯 스마트폰의 높은 의존도가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한국정보화진흥원, 2014)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 매체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및 수업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매체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연미, 이선정, 신효식, 2009; 장성화, 조경덕, 2010).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로 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수면 시간 감소로 학교지각 문제(배진영, 2012), 교사나 교우 관계에서의 부정적 태도 문제와 정서·행동의 문제가 나타난다(노원경, 김태은, 정은주, 김의정, 2013). 또한 스마트폰 사용은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책임감, 학습열정, 솔선수범, 개방성, 창의성, 자기평가력 등 학습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석규, 이은영, 2015), 성적 문제 및 학교규칙을 준수하려는 동기나 학교행사에 참여하려는 자세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생활 적응 영역 전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지식과 올바른 행동경향을 습득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미숙, 2001). 그리고 학교는 아동이 사회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차유림, 2001) 성인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은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 과정에서 학교생활, 학교수업,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등을 학생 자신이 수용하고 자신의 요구에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 및 동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와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형성하고 학업성적도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이은영, 2010). 결국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이은영, 2010). 그러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많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업중단, 교사와의 갈등, 성적부진, 비행, 자살 등의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스마트폰의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에는 개인내적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내적 변인으로는 자기통제력(석말숙, 구용근, 2014), 자기효능감(한현지, 2015), 자아존중감(서지혜, 2012) 등이 있다. 환경적인 변인은 가정 및 학교 등에 초점을 둔 연구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김소영, 2016), 부모의 양육태

도(김병년, 최홍일, 2013; 임정아, 김명식, 2018), 부모애착(최선우, 김승현, 2015), 가족 기능성(고재수, 2014)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은 가정 내에서 인간관계를 배우는데, 특히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아동의 정서적·심리적인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가정 내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주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에 중요한 매개체이자 개인의 심리발달과 사회적응에 기초가 되는 요소로서(선명숙, 2011) 자녀의 도덕성, 사회성, 학습능력, 문제행동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노운옥, 전미경, 2006).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민하영(1991)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지선화(2013)는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 뿐만 아니라 구성원간의 감정 교류와 정보 전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호작용(Satir, 1983)이라고 하였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전달 방식과 형태에 따라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분류된다. 개방형 의사소통이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작용에서 억압하지 않고,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조심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Olson et al., 198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고 촉진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우울, 불안, 비행은 감소하며(노성향, 1995), 또래와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김영미, 심희옥, 2000), 상호간에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노운옥, 전미경, 2006).

여기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 변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 학습태도(박석규, 이은영, 2015)와 학교에서의 대인 관계(노원경 등, 2013)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 관심을 갖고 몰입하기 어렵고, 타인과 대면하여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기기를 통한 타인과의 교류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면관계에서의 의사소통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인경, 박상욱, 최혜미, 2017). 대면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은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김지성, 김화수, 2012),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이며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대인관계 부족과 의사소통능력 문제가 완화되어 학교생활적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개방적인 경우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며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Olson et al., 1985), 스마트폰 과의존에 의한 관계 단절의 위험성을 낮추고 자녀가 직면한 학교생활 관련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부모로부터 얻을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교적응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하여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스마트폰 의존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김영미, 2015; 이경미, 김원일, 2014). 이와는 반대로 부모-자녀 간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보일수록 자녀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며(고상미, 2000)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다(이수진, 문혁준, 2013).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독선적이며 평가적인 태도로 보이거나 자녀를 무시하고 자녀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식의 의사소통으로 일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련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질이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의존도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나 대상자가 대부분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사용시기가 영유아기로 저연령화 되었고 학령기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학교적응, 그리고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 치료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학교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조절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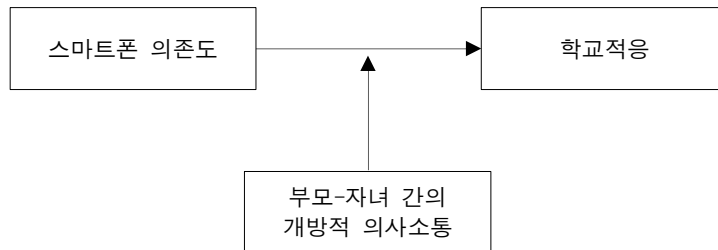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P시와 A시 소재의 초등학교 5곳에 재학 중인 5~6학년 30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145명(48.3%)과 여학생 155명(51.7%)을 포함한다.

연구대상의 표집된 지역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하며, 공업과 농업 중심 도시로 알려져 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생 중에서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1) 스마트폰 의존도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한국언론학회(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의존도는 단일차원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 =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을 역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내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고립감을 느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86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적응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아영(200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학교생활 적응 척도는 구성 요인이 4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뉘었다. 하위 요인은 교사관계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학교수업 5문항, 학교규칙 5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6점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약간 아니다’, 3점 ‘아니다’, 2점 ‘아니다’, 1점 ‘전혀 아니다’의 Likert식 6점 척도로 만들어 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 별로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교사관계 .77, 교우관계 .80, 학교수업 .77, 학교규칙 .74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적응은 .78로 나타났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신뢰도가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Nunnally와 Bernstein(1994)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3)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 등(1985)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C)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 중에서 청소년 자녀를 설문하는 도구를 민하영(1991)이 수정한 척도를 김연화(2007)가 추가적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하위 척도만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억압이 없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한다(Olson et al., 1985). 이 척도는 5점 Likert 방식(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며,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릴 수 있다.”, “내 질문에 부모님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며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아버지 10문항, 어머니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는 아버지 .88, 어머니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8년 1월에 조사된 연구로 P시와 A시의 소재하는 초등학교 5곳의 5~6학년 306명에게 각 반 담임 선생님이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과 방향성을 알려주고, 본 연구조사를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초등학생 306명에게 배포하였고,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총 30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구성한 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학교적응 간의 관계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는 표 1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22($SD = .63$),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4.29($SD = .70$), 아버지-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63($SD = .76$),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83($SD = .72$)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표시된 변수들은 모두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한 왜도의 절대값이 3 또는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Kline, 2011).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N = 300)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스마트폰 의존도	1.00	4.00	2.22	.63	.42	.01
학교적응	2.25	5.75	4.29	.70	-.32	-.14
아버지-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1.00	5.00	3.63	.76	-.72	.97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1.40	5.00	3.83	.72	-.56	.00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스마트폰 의존도($r = .16, p < .01$)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남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r = .25, p < .001$)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학교적응($r = -.39, p < .001$), 초등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r = -.21, p < .001$),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r = -.23, p < .001$)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모 모두와의 의사소통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어머니-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r = .73,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N = 300)

구분	1	2	3	4	5	6
1. 성별	1					
2. 학년	.05	1				
3. 스마트폰 의존도	.16**	.25***	1			
4. 학교적응	-.03	-.15**	-.39***	1		
5.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01	-.10	-.21***	.44***	1	
6.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07	-.09	-.23***	.40***	.73***	1

** $p < .01$, *** $p < .001$.

2.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아버지-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의 경우 표 3과 같다. 먼저, step 1에서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던 초등학생의 성별과 학년에서 학년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 p < .05$). 그리고 step 2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와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투입하였을 때 이 두 독립변인이 갖는 설명력은 27%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step 3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와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 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이 1% 상승하였으며 조절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 p < .05$).

표 3. 초등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N = 300)

구분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성별	-.01	-.01	.05	.03	.05	.04
학년	-.22	-.15*	-.06	-.04	-.07	-.05
스마트폰 의존도			-.34	-.31***	-.33	-.30***
아버지-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34	.38***	.34	.37***
스마트폰 의존도 × 아버지-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12	.10*
R^2	.02		.29		.30	
ΔR^2			.27***		.01*	
F	3.34*		29.54***		24.70***	

* $p < .05$, *** $p < .001$.

어머니-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경우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tep 1에서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던 초등학생의 성별과 학년에서 학년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 p < .05$). 그리고 step 2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와 어머니-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투입하였을 때 이 두 개의 변수가 학교적응 변량에 대해 2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인을 투입했을 때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beta = .08, n.s.$).

표 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N = 300)

구분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성별	-.03	-.02	-.01	.00	.01	.01
학년	-.23	-.15*	-.06	-.04	-.07	-.04
스마트폰 의존도			-.36	-.32***	-.35	-.32***
어머니-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31	.32***	.30	.31***
스마트폰 의존도 × 어머니-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10	.08
R^2	.02		.26		.27	
ΔR^2			.24***		.01	
F	3.60*		26.08***		21.38***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5~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도, 학교적응,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스마트폰 의존도,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초등학생의 성별과 연령이 스마트폰 의존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의존도의 차이 분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강균호, 2017; 박정아, 2013)와 일치한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박순이, 2016; 정은다, 2013)는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음을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증가했다는 연구(손은경, 2014)와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 사용 시기가 길어져 스마트폰 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이미경, 2014; 이재연, 2013; 이지은, 2014)와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학교적응과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강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먼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김영미, 2015; 김지선, 백지숙, 2015; 박수빈, 2013; 오윤정, 2015; 임미림, 2014)과 일치한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아버지 및 어머니와 부정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결과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김영미, 2015; 배성만, 박중규, 고영삼, 2012; 이수진, 문혁준, 2013; 임미림, 2014)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생활적응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서의 문제점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점차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3세에서 9세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이는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관련 예방교육과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보이는 초등학생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적 접근이 저학년부터 시작돼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중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만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의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이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수진, 김혜숙, 2011; 도금혜, 2008; 황연덕, 이진숙, 2012)를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형태는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권혁찬, 안귀여루, 2015; 윤명숙, 김남희, 박완경, 2014). 또한, 사회생활의 일부인 학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김영순, 신효정, 2014)를 지지한다. 한편,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은 기존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버지-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완충 효과를 보였다. Wong, Yuen 그리고 Li(2015)에 따르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결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터넷에 몰입이 일어난다. 또한 인터넷 과다사용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하기 위한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Kardefelt-Winther, 2014).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줄이고 현실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스마트폰에 몰입하거나 의존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며 친근감을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대하는 경우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긍정적인 정서와 친밀감을 경험하며, 이는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심보현, 2013; 임금옥, 강길현, 박희서, 2015). 결국,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긍정적인 정서와 친밀감을 통해 아버지-자녀 간 원만한 관계 유지에 기여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신애, 방윤이, 임윤미, 민혜영 그리고 박효정(2018)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와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아버지가 주 양육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와 맺는 관계와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버지와 자녀 간에 사실과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 가족구성원 간에 정서적으로 연결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연호, 류점숙, 신호식, 2005). 또한 노윤옥과 전미경(2006)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가족구성원 간 효율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자녀와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와 가정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엄격한 가부장적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아동이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에서도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보다 자녀의 학교적응 및 부적응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윤정, 이동훈, 2011). 아버지-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일수록, 자녀는 수업, 학업 및 또래 관계 등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윤정, 이동훈, 2011). 또한, 아버지가 자녀와 감정을 터놓고 소통한다면 자녀에게 심리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해주고 일상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도금혜, 2008; 장영애, 2008; 조주은, 정

옥분, 2004; 황희숙, 김은희, 주희진,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부정적 정서와 대인관계에서의 예민함을 더 많이 경험하며, 자아존중감의 수준도 낮다(백혜원, 신윤미, 신경민, 2014).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우울 수준을 낮추고(조하나, 백용매, 2009),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한다(지효숙, 2008).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아동은 적절한 자기조절과 스트레스 대처(장영애, 2008) 또는 사회적 유능감(최경순, 1993) 및 정서지능(길경숙, 2006)을 발휘하여, 아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학교적응에서 문제가 덜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친밀감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서 파생되는 잠재적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며 자녀와 거리를 두는 아버지가 아니라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아버지로 변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스마트폰은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자 또래집단 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송두리, 2013). 또한, 스마트폰은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 관계 확대에 기여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동들의 친화 동기 및 소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윤혜정, 권경인, 2011).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이지은, 2014), 부모로 국한되어 있던 대화 상대가 친구, 혹은 이성 친구로 확장된다. 이 시기에는 친구와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관계의 구축에 많은 관심을 주고(이지은, 2014),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서를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 모든 것을 즐겁고 편리하게 이룰 수 있도록 모바일 SNS가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이 시기의 아동들은 충동성이 높고 자기통제력이 약하여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양혜경, 2014). 초등학생 고학년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기여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에 더욱 빠지게 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미흡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의존하기 쉽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고 모든 발달영역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시기이며, 건강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중·고등학생 시기, 나아가 성인기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이지은, 2014).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로 인한 부작용을 낮추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5~6학년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스마트폰 의존도와 부모 관련 변인을 통하여 파악하고, 스마트폰 의존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의 완충 효과를 알아보았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 게다가 현재 스마트폰 사용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중시함으로써 부모교육 및 가족

내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에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자녀와 자유롭게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의 위험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과다 사용자의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스마트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매체환경의 변화가 실제 현실에서의 아동의 행동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스마트폰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조절능력이 아직 성인처럼 완전하지 않고 사춘기로 접어들어 충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권윤희, 김정남, 2004)에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류세인, 조인숙, 2015).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듯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관계가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의사소통교육을 보급하여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갈등 해결과 소통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캠프와 아버지 역할 교육을 개발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거나 학교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심한 관찰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부모-자녀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이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러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기관과 가정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교육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나 초등학교 5~6학년에 국한되어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는 특정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층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 변인들로 개인내적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 중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학교 변인 및 지역사회 변인 등은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자 가운데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우울장애 또는 행동정서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 연구의 설문에 정확한 응답이 어렵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진 아동들을 선별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신뢰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균호 (2017).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가 초등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상미 (2000).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재수 (2014).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유연성의 관계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6), 140-151. doi:10.5392/JKCA.2014.14.06.140
- 권윤희, 김정남 (2004).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과 충동성, 공격성 및 감성지능과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5**(3), 460-470.
- 권혁찬, 안귀여루 (2015).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과사용에 미치는 영향: 자기 통제를 매개 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22**(5), 255-274.
- 길경숙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2), 147-164.
- 김미숙 (2001). 초등학생의 발표불안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년, 최홍일 (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 대학생 중심 - . **사회과학연구**, **29**(1), 1-25.
- 김소영 (2016).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김혜숙 (201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0**(2), 203-222.
- 김아영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 김연화 (2007).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미 (201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223-242. doi:10.18398/kjlgas.2015.29.1.223
- 김영미, 심희옥 (2000).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4), 159-175.
- 김영순, 신호정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학교 적응의 학교 적응의 구조적 관계: 사회성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0**(3), 253-275.
- 김인경, 박상욱, 최혜미 (2017).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대인관계 건강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 637-648. doi:10.5762/KAIS.2017.18.1.637
- 김지선, 백지숙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3**(1), 53-64.

- 김지성, 김화수 (2012).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한부모가정학**, **5**(1), 25-35.
- 노성향 (199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원경, 김태은, 정은주, 김의정 (2013). 초등교사가 인식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의 문제행동 특성과 학급차원의 지원방안. **한국교원교육연구**, **30**(3), 221-247. doi:10.24211/tjkte.2013.30.3.221
- 노윤옥, 전미경 (2006).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1), 1-16.
- 도금혜 (2008). 아버지 관련 변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61-872.
- 류세인, 조인숙 (2015).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9), 6180-6189. doi:10.5762/KAIS.2015.16.9.6180
- 민하영 (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석규, 이은영 (2015).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7**(2), 576-588. doi:10.13000/JFMSE.2015.27.2.576
- 박수빈 (2013). 중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이 학교생활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이 (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아 (2013).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만, 박중규, 고영삼 (2012).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사용동기의 이중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529-544. doi:10.16983/kjisp.2012.9.3.529
- 배진영 (2012). 청소년의 뉴미디어 의존실태와 관련변인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원, 신윤미, 신경민 (2014).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정서 및 행동의 문제. **신경정신의학**, **53**(5), 320-326. doi:10.4306/jknpa.2014.53.5.320
-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한국언론학회 (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서윤정, 이동훈 (2011). 중학생의 자아상태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학교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류분석이론 관점에서. **상담학연구**, **12**(6), 2123-2144. doi:10.15703/kjc.12.6.201112.2123
- 서지혜 (2012). 고등학생의 개인, 부모, 또래 및 스마트폰 이용 동기 요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 구조적 관계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말숙, 구용근 (2014).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905-928. doi:10.13049/kfwa.2014.19.4.905
- 선명숙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경 (201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두리 (2013). 부모 및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보현 (2013). 청소년의 거절 민감성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경 (2014). 개인적, 환경적, 매체 특성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윤정 (2015).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부모감독의 조절효과.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 김남희, 박완경 (2014). 중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에 미치는 게임 및 가족, 여가요인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21**(4), 309-337.
- 윤혜정, 권경인 (2011). 휴대전화 중독 청소년들의 특성 및 중독과정 촉진 요인. **상담학연구**, **12**(2), 577-598. doi:10.15703/kjc.12.2.201104.577
- 이경미, 김완일 (201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6), 2627-2644. doi:10.15703/kjc.15.6.201412.2627
- 이기영, 최성열, 신성철, 장성화 (2008).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및 또래 관계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5**(4), 111-133.
- 이미경 (2014).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문혁준 (2013). 중학생의 자기통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6), 587-598. doi:10.5934/kjhe.2013.22.6.587
- 이신애, 방윤이, 임윤미, 민혜영, 박효정 (2018).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6), 188-196. doi:10.5762/KAIS.2018.19.6.188
- 이연미, 이선정, 신희식 (2009).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환경 변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3), 29-43.
- 이은영 (2010).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 (2013). 초등학생의 휴대폰 중독, 학교생활 적응,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 (201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현황과 중독실태에 대한 고찰.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금옥, 강길현, 박희서 (2015).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와 청소년 비행의 인과경로에 있어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1), 247-254. doi:10.9708/jksci.2015.20.1.247
- 임미림 (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아, 김명식 (2018).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공격성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3), 395-405. doi:10.14400/JDC.2018.16.3.395
- 장성화, 조경덕 (2010). 청소년의 우울, 대인불안, 학교적응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285-293. doi:10.5392/jkca.2010.10.11.285
- 장영애 (2008).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 영향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1), 87-99.
- 정연호, 류점숙, 신호식 (2005).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전남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2), 145-158.
- 정은다 (2013).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충동성 및 사회성 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주은, 정옥분 (2004).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3), 135-155.
- 조하나, 백용매 (2009). 아동, 청소년상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2), 1035-1049. doi:10.15703/kjc.10.2.200906.1035
- 지선화 (2013).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효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과 성취동기 및 자아존중감 관계 연구. **부산교육학연구**, **21**, 75-96.
- 차유림 (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199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4**(2), 115-135.
- 최선우, 김승현 (2015).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365-383. doi:10.16983/kjsp.2015.12.3.365
-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연구팀 (2015). **2015년 미디어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201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016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현지 (2015).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조절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연덕, 이진숙 (2012). 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역할. *아동학회지*, **33**(1), 223-236. doi:10.5723/kjcs.2012.33.1.223
- 황희숙, 김은희, 주희진 (201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2), 409-430.
- Kardefelt-Winther, D. (2014).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ritique of internet addiction research: Towards a model of compensatory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1*, 351-354. doi:10.1016/j.chb.2013.10.059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series in psychology) (Vol. 3). New York: McGraw-Hill.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m, M., & Wilson, M. (1985). *Family inventories*.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Satir, V. (1983).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Wong, T. Y., Yuen, K. S. L., & Li, W. O. (2015). A basic need theory approach to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distress. *Frontiers in Psychology*, *5*, 1562. doi:10.3389/fpsyg.2014.01562